

광주·전남 제조업 봄바람 불어오나

2월 제조업 CBSI 90.5...6.8P 상승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90선 돌파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2.7P 하락

2월 중 광주·전남 소재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전월에 이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기업심리지수(CBSI) 상승폭이 확대됐고, 비제조업은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된 '2026년 2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CBSI는 2월 기준 90.5로 전월(83.7) 대비 6.8포인트(p) 상승했다.

CBSI는 2003~2025년의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이보다 높으면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광주·전남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조업 CBSI가 70~80대 수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지역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비관적이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2월에는 90선을 돌파한 데다, 전월 대비 상승폭도 커진 만큼 회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제조업 CBSI가 98.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월 대비 9.7p 하락하며 기준치 밑으로 내려왔다. 전남은 87.6으로 1달 전보다 13.2p 뛰었다. 지난해 하반기 중 전남 제조업 CBSI는 60~70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단번에 전국 평균 수준까지 회복했다.

구성지수의 기여도별로는 업황(+0.3p)과 자금사정(+4.9p)이 올랐고, 생산(-1.5p), 신규수주(-1.3p), 제품재고(-0.8p) 등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 비제조업 CBSI는 전월보다 2.7p 하락한 89.5를 기록했다. 광주(98.3)는 0.2p 올랐지만, 전남(85.1)은 4.2p 떨어졌다. 광주와 전남 모두 기준치에는 미치지 못하며 지역 비제조업 기업들이 지역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

비제조업 CBSI는 주요 구성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지수 기여도별로 보면 재산성(-2.2p), 업황(-1.1p), 매출(-1.1p), 자금사정(-1.1p)이 떨어지면서 매출을 제외한 모든 주요 지표들이 마이너스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 기업들은 여전히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이 23.1%로 비중이 가장 컸고, 경쟁심화(19.5%), 불확실한 경제상황(15.7%) 등이 뒤를 이었다. 내수부진 비중이 5.4%p 올라 경쟁심화를 제치고 애로사항 1위로 올라섰다.

비제조업 기업 역시 내수부진이 27.4%로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목됐고, 인력난·인건비 상승(18.4%), 자금부족(8.9%), 경쟁심화(8.3%), 불확실한 경제상황(8.1%)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광주·전남지역의 종사자 수 5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 257개사, 비제조업 266개사 등 총 523개사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정주영 현대차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정주영 현대차그룹 창업회장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여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정주영 창업회장 '사람을 위한 혁신' 재조명

현대차그룹, 25주기 추모 음악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아산 정주영 창업회장 서거 25주기를 맞아 추모 음악회를 열고 창업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사람을 위한 혁신'이라는 핵심어로 다시 조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이어지는 울림'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과 국가보훈부 등 공익 기여자,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후원하는 미래 인재, 정·관·재계 인사들과 그룹 임직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주영 창업회장 후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무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이 올라 창업회장의 삶과 정

신을 음악으로 풀어냈다. 정의선 회장은 추모사에서 "창업회장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며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뤄낸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정주영 창업회장이 대담한 비전과 실행력으로 건설·자동차·조선 등 한국 산업의 기반을 개척하고 기술 자립과 해외 진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돌파구를 열어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창업회장의 사람 중심 철학이 현대차그룹의 비전인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을 통해 풍요로운 삶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

효성중공업,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기술 국산화 '순항'

국산화 추진 현황 점검회의

효성중공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25일 서울 마포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산업진흥회,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와 'HVDC 에너지 고속도로 국산화 추진 현황 점검회'를 열고 기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서해안 일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이번 점검회는 그동안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던 대용량·전압형 HVDC 기술의 국산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효성중공업은 2GW급 전압형 HVDC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인 컨버터 밸브와 제어 시스템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전압형 HVDC는 기존 전류형 방식보다 전력 제어가 쉽고 계통 안정화에 유리해 재생에너지 연계에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효성중공업은 2024년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 기반 전압형 HVDC 시스템을 개발해 양주변전소에 공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국산 HVDC 기술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효성중공업, 한국전력공사, 전기산업진흥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마포본사에서 열린 초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고속도로 국산화 추진 현황 점검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그룹 제공>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술 자립을 기반으로 기자재,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성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HVDC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이라며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산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효성중공업은 설계부터 컨버터, 제어기, 변압기 등 핵심 기자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총 3300억원을 투입해 창원공장에 HVDC 변압기 전용 공장을 건설 중이며 완공 시 '국내 유일 HVDC 종합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그간 축적해 온 전력기기와 HVDC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국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한전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계 시장 진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오비맥주, 광주 북부경찰 협력 안심귀가 안내판 5곳에 설치



오비맥주는 "광주시 북부·북부경찰과 협력해 지역 야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친환경 '안심귀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사업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있는 북구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지난해 말 오비맥주가 광주 북구와 사랑의열매를 통해 광주 북구 굶나루사회복지관에 기부한 1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안내판 설치 지역은 관계 기관과 논의를 거쳐 북구 내 범죄 취약 지역인 용주로와 반룡로 일대 원룸촌과 골목길 등 총 5곳으로 선정했다. LED 큐브형의 안내판은 어두운 골목길의 가시성을 높여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멀리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보행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안내판은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낮 동안 충전되고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친환경 시설물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수석 부사장은 "주민들의 야간 보행 불안에 덜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은 기준금리 연 2.5%, 6연속 동결

경기 좋은데 집값·환율은 불안

올 성장률 전망 1.8%→2.0% 상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위원 7명 전원 일치'로 동결을 결정하면서 의결문에서 "불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에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도 지속되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포인트로 틀었고, 바로 다음 달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네 차례 회의 중 2.5%를 두 차례 인하로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금통위는 이후 하반기 들어 7·8·10·11월 잇달아 금리를 묶었고, 지난해와 이달 새해 두 차례 회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장기간 인하 없이 횡보하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상황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올해 실질 GDP 성장률 눈높이도 1.8%에서 2.0%로 0.2%포인트(p) 올려 잡았다. 금리를 낮추기에는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환율 불안 문제 등이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세열골

“원활한 자금 지원 중소기업 살리기 최선”

황광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만한 자금 지원을 비롯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연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황광명 전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장이 신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으로 취임했다.

황 본부장은 장흥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한국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조사국, 금융통화위원회

실, 경제연구원, 국제국, 광주광역시청 과장, 북경사무소장직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에는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벤츠코리아, 한국판 직판제 도입

전국서 단일가격으로 차량 구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4월부터 직판제(수입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를 도입한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25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전국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를 도입하는 협약을 맺었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란 벤츠가 제시한 새로운 판매방식으로 현지법인이 기존 딜러사별로 상이했던 차량 가격 및 재고 관리 구조를 통합해 관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판매법인이 차량 가격 및 재고 관리 구조를 하나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직판제의 성격은 띤다는 것이 벤츠 코리아의 설명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6307.27 (+223.41)
↑ 코스닥	1188.15 (+22.90)
↓ 금리(국고채 3년)	3.062 (-0.062)
↓ 환율(US D) <오후 4시 50분 기준>	1427.95 (-1.45)